

서울大病院 国内최초로 陽電子단층촬영기 설치

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에 국내 최초로 첨단영상진단장치인 陽電子단층촬영기(PET)센터가 개설되어 개소식 및 기념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.

이 양전자단층촬영기는 기존의 자기공명영상장치(MRI)나 컴퓨터단층촬영기는 눈으로 볼수 있는 병만 살피는데 반해 PET는 눈으로 볼수 없는 기능의 이상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로 도입가격이 60억원으로 국내 최고가 의료장비다.

현대의학의 최난제증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서는 멀정한데 기능의 이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로 이때 PET는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원리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(양전자방출핵종)로 표지된 대사물 또는 약제를 체내혈관에 투입한뒤 이 물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화학적 변화를 외부에서 감지해 컴퓨터로 영상화하는 것이다. 이미 이러한 원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계로 까지 응용실험이 미주에선 활발하게 진행중이라고 한다.

대뇌를 이 장치로 보게 되면 대뇌피질의 각부위가 담당하는 역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부위로 혈액이 많이 몰리는 것을 이 장치로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게 된다.

즉 기쁜 감정을 맡는 대뇌부위로 혈액이 몰리게 되면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.

PET는 특히 뇌혈관질환, 치매, 간질 정신분열증환자와 같이 CT나 MRI로 감지해내기 힘든 신경계 기능장애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같은 심장질환, 각종 암의 전신전이 여부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.

검사비용은 MRI검사비용의 두배가량으로 1회 검사에 90만원 정도 소요된다. 검사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.

서울대병원측은 「워낙 고가장비라 병원 경영면에선 오히려 적자가 예상되나 수익성 보다는 연구목적과 환자치료를 위해 도입 설치했다」고 말한다.

한양종합검사(주) 사무실 이전

회원사인 한양종합검사(주)는 1994년 6월 30일(목요일)일자로 본사 및 서울출장소를 이전하였다.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회사명	한양종합검사주식회사	한양종합검사주식회사
주 소	본사 및 서울출장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1-4 양재B/D	본사 및 서울출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-25 서호B/D
전 화	(02) 578-7651~4	(02) 597-0141~4
FAX	(02) 578-7655	(02) 579-0145

주식회사 경안실업 상호변경

- 변경상호명 : 주식회사 포스틸(POSTEEL)
(POSCO STEEL SALES & SERVICE CO., LTD)
- 변 경 일 : 1994년 7월 1일